

지역 소식통

고창군, 책 읽는 지자체 대상 3년 연속 수상

고창군이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2021년 '책 읽는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책의 소중함과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우수 기관 및 개인을 발굴·육성해 시상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 중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창군에선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중장년층을 위한 연중 상설강좌 및 인문학 강좌 운영 ▲사회적 독서 활성화 등을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과 '고창한 책 읽기' 사업 ▲높을 고창사범단 육성 ▲고창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주산면, 코로나19 자체 방역활동 강화

주산면은 위드 코로나 이후 관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코로나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방역 전담요원 5명으로 구성된 자체 방역반을 구성하여 관내 주요 공공시설(게이트볼장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및 주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주산면사무소는 자체 코로나 방역반 운영과 더불어 매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자체 방역 실시 점검 고령자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홍보 및 예약 지원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에너지복지 실현... 상호 협력

정읍시-대상-한국기후변화연구원,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

정읍시와 대상(주),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정읍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읍시와 대상(주)(이하 대상),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17일 중장기적 정읍시 탄소중립 달성과 농업 분야 저탄소화를 통한 자체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상이 기존 사회공헌 사업을 세 기관이 연계해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유진섭 시장과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김상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은



이날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에 서명하고 탄소배출권(KOC) 수익 재기부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업 방향과 발전 방안 등을 담당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

인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억원을 들여 시설원에 농가 2개소에 에너지절감 시설인 공기 열 히트펌프(heat pump)를 지원한다. 공기 열 히트펌프는 공기 열과 미활용 에너지 지원을 실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친환경 열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불필요해 화재나 폭발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나 오염 발생 요인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이러한 장점에 주목, 절감되는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배출권은 향후 농촌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약취 초강경 대응

생활 불편 호소 민원 잇따라 개선명령 처분 등 대응... 내년 3월까지 약취저감 시설 설치

고창군이 신림종돈개량사업소 축산 약취 관련,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초강경 대응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림면 반룡리에 위치한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고창읍내와 신림면 반룡리 주민들이 약취로 인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약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종돈사업소가 약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서 고창군은 2차례(8월, 5월)에 걸쳐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처분을 하는 등 약취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지난 5월 고

창군의 개선명령 처분에 따라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액비저장조 상부 안개분무(탈취)시설 설치, 액비 저장조 내 순화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7월까지 시설개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8월 약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서 2차 개선명령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약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체 사업비 13억7000만원을 확보해 고액분리기, 퇴·액비 고속발효기, 탈취설 설치, 액비순환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취약시간대 약취민원 신속대응을 위해 9개 사업장(돼지농장 8개소, 아스콘공장 1개소 등)에 약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11대를 설치해 약취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약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활용한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주민들이 약취로부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부동산시장 안정화·거래 질서 확립 나서

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부동산 중개 알선 등 위반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종 작성, 중개보조의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유사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 등이 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72개 중개업소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중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중개위원이 중개행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와 자격증 미취득자의 부동산 매매알선 또는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사태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와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대리인에게 구두 위임 또는 백지 위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로 국내 농산물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정읍에서 생산된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씨 없는수박, 일본 수출길 올라

수출 상차식 개최... 정읍 농산물 우수성 알려

코로나19로 국내 농산물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정읍에서 생산된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시는 지난 16일 정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시는 이번 상차식을 통해 정읍의 고품질 수박을 일본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고국의 맛있는 수박 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당도와 무게 선별작업을 거친 상품으로 수출물량은 약 7톤에 이른다.

수출업체를 통해 일본 후쿠오카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일본에서 수박이 생산되지 않는 11월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수, 삼성치과 기증 무궁화 식재 현장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6일 익산 모현 삼성치과에서 기증한 무궁화 식재 현장인 부안해탈마루를 방문해 권태성 원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무궁화 식재 현장에는 임득인 무궁화협회 회장과 김득한 (췌)두산 무궁화보급 부장, 박영숙 부안해탈마루 터리클럽 회장 등이 참석해 직접 무궁화를 식재했다.

군은 부안해탈마루 무궁화 식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해탈마루 무궁화 식재를 위해 도움을 주신 권태성 원장과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Bokguk' (복국) featuring a polar bear in a snowy landscape. Text includes: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복국'',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and a message about climate change and carbon emissions.